도카시키

태평양전쟁의 발자취
1945 년, 게라마 제도에 미군이 상륙한 것과 관련한 여섯 군데의 장소를,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돌아보는 여정

경로: 니시야마 산 - 도카시키 마을
거리: N/A
소요 시간: 2 시간
난이도: N/A

개요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은 한 지역씩 함락시키는 징검다리 작전에 따라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해 진군했습니다. 미군은 1945 년 2 월 19 일에 이오지마 섬에, 4 월 1 일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했습니다. 그 사이에 3 월 26 일에 자마미의 섬들에 상륙했고, 이어서 3 월 27 일에 도카시키에 상륙하여 게라마 제도를 점령했습니다.

이 여정은 도카시키 북쪽에 있는 많은 주요한 전쟁에 관련한 장소를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돌아봅니다. 출발 지점인 니시야마 산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스쿠터나 자동차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적지인 이 니시야마 산 정상에 있는 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에 세 군데, 도카시키로 돌아오는 길 도중에 한 군데, 그리고 도카시키 마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정

출발 지점으로 가려면

니시야마 산 정상에 있는 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에 가려면 도카시키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손도 세이넨노이에선을 지나갑니다. 접수대에 들러서 도착했음을 알려주세요. 니시야마 산과 도카시키 마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카시키지마 섬의 지도를 봐주세요.

1. 침공 개시

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에 들어가면 **니시야마 전망대**로 향해주세요. 전망대에서는 도카시키의 서쪽에 있는 자마미손의 섬들(자마미, 아무로, 아카, 게루마, 후카지, 도나키, 아구니, 구메)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은 3 월 23 일, 자마미의 섬들에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을 개시했고, 3 월 26 일에 자마미지마 섬에 상륙했습니다.

2. 집단 자결 터

미군은 3 월 27 일, 도카시키지마 섬을 침공하여 섬 서쪽 해안의 도카시쿠에 상륙했습니다. 정글로 피난했던 많은 섬 주민들은 적의 손에 떨어지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미군이 상륙한 다음 날인 3 월 28 일에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집단 자결 터 가운데 한 군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옛 미군 창고 옆에 있는 문을 지나 위령비를 돌아 들어가서 정글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면 울타리로 에워싸인 광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집단 자결 터입니다. 돌아올 때는 멈춰 서서 위령비의 뒤에 있는 패널을 읽어주세요. 이 패널에는 당시 미국의 신문기사가 전재되어 있는데, 의도치 않게 일어난 집단 자결을 본 침략자가 느낀 공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3. 오키나와 전투

이번에는 **동쪽 전망대**로 가보세요. 여기에서는 구로시마 섬(북동쪽), 마에지마 섬(눈앞), 게이세시마 섬(마에지마 섬 서쪽에 있는 세 작은 섬),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이 보입니다. 게라마 제도에서의 조직적인 저항은 3 월 29 일까지 다 무너졌고, 미군은 신속히 침공을 진행했습니다. 3 월 31 일에 마에지마 섬과 가미야마시마 섬(게이세시마 섬 중의 하나)을 함락시키고 4 월 1 일에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6 월 22 일까지 82 일간 계속되었습니다(소규모 충돌은 9 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피가 흐른 전투에서는 약 12,500 명의 미군 병사, 94,000 명의 일본 병사, 그리고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많은 오키나와의 민간인(일부 추정에서는 원래 30 만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 게라마 제도의 전몰자 위령비

다음 장소로 가려면 자동차로 도카시키로 이어지는 길의 3 분의 2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합니다. 헬리포트를 지난 곳에 전몰자 위령비인 **시라타마의 탑** 표지가 있습니다. 이 비는 원래 미군이 상륙한 지 정확히 6 년 뒤인 1951 년 3 월 28 일에 건립되어 섬 주민, 일본 병사, 군속, 방위대원의 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니시야마 산에 있는 실제 집단 자결 터에 서 있었으나, 니시야마 산이 미군의 군용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1962 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설치했습니다.

5. 유산탄을 맞은 석회암 돌담

다음 목적지는 도카시키손 도카시키 신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모토가**의 거대한 석회암 돌담입니다. 일찍이 이곳에서는 유복한 선장의 훌륭한 집이 세워져 있었으나 가옥은 전쟁으로 파괴되고 돌담만 남아 있습니다. 돌담에 남은 유산탄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크게 팬 자국은 전투기에 탑재된 기관총, 작게 팬 자국은 손에 든 무기를 맞은 곳입니다. 돌담의 동쪽 모퉁이 외벽은 색이 다른데, 이는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부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6. 이에지마 섬 주민 수용소

도카시키손에 있는 마지막 목적지는 **이에지마 섬 주민 수용소 기념비**입니다. 미군이 일본 본토 침공을 위해 이에지마 섬(70km 북쪽)에 기지 건설을 결정했을 때, 약 1,700 명의 이에손 주민이 이곳 도카시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군의 포격을 면한 소수의 가옥이나 별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텐트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945 년 8 월 15 일에 일본이 항복한 뒤 언덕으로 피난했던 지역 사람들이 은신처에서 돌아오자 도카시키 주민과 억류당했던 이에지마 섬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은 미군이 이에지마 섬 주민들이 섬의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가할 때까지 약 2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도카시키의 그 외 장소

특공정 비밀 참호(도카시키 해변)
전적비(손도 아하렌선)
아카마쓰 부대 본부 수로(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

SUGGESTED PHOTO(S)

1. Mt. Nishiyama
2. Western viewpoint
3. Suicide site
4. Monument & signs
5. Eastern viewpoint
6. Shiratama no To
7. Nemoto House Wall
8. Ie Villager Monument